

“천년의 사랑이 온다”...정읍사문화제 19일 개막

21일까지 정읍사공원 일원 전국 40개팀 거리퍼레이드 러브판타지쇼 등 행사 다채

에서 치러진 2차 예심에서는 본선 진출자 21명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오디션은 전국에서 참가 신청한 인원이 1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청소년들의 관심이 뜨거웠으며 특히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300여명이 신청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정읍사 여인 제례, 축하공연, KBS 전국 노래자랑, 정읍사 가요제, 사랑의 소원 등 달기 등의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 행사장 인근 벚꽃로의 아름드리 벚나무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배치해 밤에도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읍사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로, 정읍의 한 행상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망부석에 올라가 남편이 돌아올 길을 바라보면서 밤길에 해를 입지 않기를 기원하며 지어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제29회 정읍사 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문화제 거리퍼레이드 모습.

<정읍시 제공>

“천년의 사랑이 온다.”

백제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정읍사(井邑詞)’를 주제로 한 ‘제29회 정읍사 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정읍시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음악과 화려한 의상을 선보이는 거리퍼레이드와 메이플 스타 오디션 페스티벌, 3차원 조형기법을 도입한 ‘정읍사 러브판타지쇼’ 등이 펼쳐진다.

거리퍼레이드는 올해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40여 개 팀이 참가해 한 차원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자리다.

시내 아양교에서 정읍사공원까지 1.3km 구간에서 진행된다.

메이플 스타 오디션 페스티벌은 지난해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청소년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전국 5대 광역도시 순회 예심을 통해 1차 선발한 300팀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농진청, 오늘부터 전주서 국산 장미품종평가회

농촌진흥청이 17일 전주 로즈피아에서 장미 재배 농가, 유통업체, 연구자, 업계 관계자와 국산 장미 품종 평가회를 연다. 평가회에서는 농진청, 각 도 농업기술원, 개인 육종가가 육성한 국산 장미 가운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30개 품종과 계통이 소개된다.



가운데 27%를 차지해 1위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지금까지 육성된 국산 장미는 200여 품종으로, 보급률도 2007년 4.4%에서 지난해 29.8%로 꾸준한 증가세”라며 “우리나라 전체 꺾은 꽃 판매액

또 로열티 절감액도 2007년 2억2천만 원가량에서 지난해 13억1000만 원까지 늘었다고 덧붙였다.

신림초는 교육용으로 활용하던 문화제 들을 학교 운영위원회 열어 유물의 영구 기탁을 결정했다.

고창 신림초등, 향토·유물 52점 고인돌박물관 기증

고창군은 신림초등학교가 향토 유물 52점을 고창고인돌박물관에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유물은 신림초가 인근 주민들의 기증을 받아 소장해 오던 문화제다.

기증된 유물은 선사시대 ‘조갯날돌도끼’, 삼국시대 단경호·광구병, 고려시대 청자발, 조선시대 청화백자호 등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신림초는 교육용으로 활용하던 문화제 들을 학교 운영위원회 열어 유물의 영구 기탁을 결정했다.

신림초는 기증유물로 개최하는 특별전과 수장고 체험 등 현장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1인 가구 ‘외로움 케어’ 맞춤형 관련산업 육성 절실” 전북연구원 주장

1인 가구 증가로 ‘외로움 케어(Loneliness Care)’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만큼 전북도 특성에 맞는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은 최근 발표한 ‘1인 가구 시대 외로움 케어 산업의 의미와 추진방향’이란 이슈브리핑을 통해 “1인 가구 증가와 동시에 1인 가구의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외로움 케어 산업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 1인 가구는 22만7600가구(2017년 기준)로 총가구의 28.5%이며 전국에서 4번째로 비중이 높다.

전북연구원원은 최근 1인 가구의 외로움에 대한 조사 결과(한국리서치, 2017)를 보면 한국인의 7%는 거의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19%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며 51%는 가끔이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시, ‘개방형 창의 도서관’ 조성사업 본격 추진

2020년까지 11개 전주시립도서관 ‘행복한 책 놀이터’로 재 정비

전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11개 전주시립도서관을 행복한 책 놀이터로 만드는 ‘개방형 창의 도서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도서관의 수동적인 고객이 아닌 설계자의 위치로 도서관을 다양한 형태의 창의 공간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사업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송전·효자·평화·금암도서관 등 4곳을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어 내년에는 삼천·서산·죽림도서관 3개 도서관을 창의 도서관으로, 오는 2020년에는 완산·인후·건지·아중도서관 4곳을 대상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해 개방형 창의 도서관 조성을 완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받아 전주시 관계자와 건축사 대표, 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 총 12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도서관별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송전도서관의 경우 1층 로비 공간을 세대를 아우르는 재미난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또 효자도서관은 유아실을 동물 컨셉으로 한 신비로운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평화도서관은 어린이실을 독립적으로 조성해 소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아이들이 온갖 열정을 발산토록 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금암도서관은 벌집 모양의 독서 공간을

설치해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편한 자세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선정되는 등 다양하고 재밌는 아이디어가 각각 뽑혔다.

시는 이들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의 도서관 조성에 반영하고자 공간 구성 컨셉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관련 업체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 도서관별 창의 공간 구성 컨셉트의 초안을 마련하고, 도서관 이용자와 아이디어 제안자 등 시민 참여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용역 업체 청년 건축가들을 공모 심사 단계부터 분관별 시민간담회까지 참여시켜 이용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창의 도서관 조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새만금 상류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사 13곳 적발

새만금 상류의 민경·동진강 유역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방출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축사 13곳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

해 8월부터 해당 시·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13곳을 적발, 2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9곳은 과태료를 물렸다고 16일 밝혔다.

수질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4곳, 가

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2곳, 퇴·액비 관리 기준 위반 7곳 등이다.

도는 오염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고질·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어린 꽃게를 잡아 유통하려던 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군산해경, 어린꽃게 불법포획·유통행위 특별 단속

군산해양경찰서가 6.4cm 미만의 어린 꽃게를 불법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일부 어선들이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식당가로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꽃게는 6월부터 9월 사이 산란과 성장을 위해 일부 기간이 포획 금지되고, 이후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된다.

보통은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코에 걸려 잡히는 자망(刺網) 그물이나 통발을 이용해 잡지만 일부에서는 그물을 변형해 배로 바다 밑바닥을 끌면서 치어와 성어 상관없이 싹쓸이하는 형태다.

잡은 꽃게는 성어와 치어로 나눠 성어는 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되지만, 치어의 경우 야간에 화물차에 실려 kg당 3000~5000원에 식당가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몸길이 미달 꽃게 불법포획과 유통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 검문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또 혼획(混獲) 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다른 고기가 우연히 걸리는 경우(우)를 핑계로 몸길이 미달 꽃게를 불법 유통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관내 식당가와 재래시장도 점검하기로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55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 조정가능)
- 문의. 010-3605-5000

